

HEREN

트루 프리미엄 멤버십 매거진 HEREN IS LOVE

OCTOBER 2015

9th ANNIVERSARY
SPECIAL





결집

건물에는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양상이 적극적으로 투영된다. 누구도 살지 않는 허름한 빈집에도 시대의 역사는 고스란히 묻어 있다. 연기백은 이런 일상적 사물과 공간에 관심을 가져온 작가다. 빈집의 오브제와 낙서, 벽지 등에서 수집된 흔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맥락을 짚는 작업을 해왔다. 그가 수집해 재창조한 작품들은 과거에 대한 향수와 죄책감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데, 이유를 쉽게 가늠하기 힘들다. **location** 송은아트스페이스 **date** 10월 6일부터 11월 28일까지 **tel** 02-3448-0100



영국 현대미술의 새로운 흐름

토비 지글러는 다소 낯선 이름이지만, 영국 현지에서는 현대미술의 새로운 흐름을 보여준다고 평가받는 작가다. 조각과 회화 모두 알루미늄을 주요 소재로 사용하는데, 캔버스 대신 알루미늄 판 위에 페인트를 얇게 입히고 다시 칠을 반복하는 식이다. 르네상스 시대의 고전을 모티브 삼아 3D 디지털 프로그램으로 대상을 해체한 뒤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추상적 형상을 표현하는데, 묘하게 낭만적인 심상을 보여준다. **location** PKM 갤러리 **date** 10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tel** 02-734-9467



현대미술 페어 '굿-즈'

젊은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고 구매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 '굿-즈'는 재기발랄한 20~30대 작가들이 주축이 된 현대미술 페어다. 그동안 가격이나 규모 면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작가들의 작품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선보인다. 기존 아트 페어의 형식에서 벗어나 공간과 동선을 작가들이 직접 기획하고, 별도의 수수료 없이 직접 작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어포더블 아트 페어'의 한국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location** 세종문화회관 예술동 **date**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컬렉터가 화가로 변신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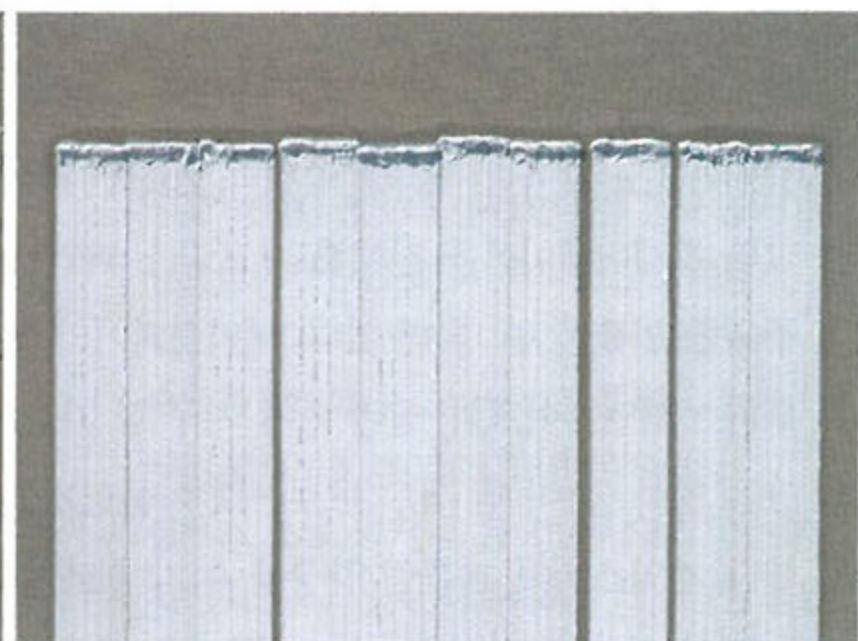
씨킴(CI KIM)은 아라리오 갤러리 김창일 회장의 작명이다. 사업가이자 통찰력이 뛰어난 컬렉터이기도 한 그는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번 전시 제목은 〈The Road is Long〉. 자신의 미술 인생은 아직 많이 남았다고 말하는 듯한 뉘앙스다. 괜히 비틀린 시선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의 작품이 상당히 훌륭하다는 걸 알 수 있다. 배짱과 감식안으로 먼 길을 달려온 이 남자의 작품은 충분히 감상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 **location** 아라리오 갤러리 천안 **date** 11월 1일까지 **tel** 041-551-5100

비움과 절제의 미학

어느 순간 단색화가 시대의 트렌드가 되면서, 한국 추상미술을 이끌어온 작가들이 새삼 재조명받고 있다. 10월 개인전을 앞둔 하중현 작가도 그중 한 명이다. 그의 대표작이랄 수 있는 '접합' 연작은 1974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된 작업으로 캔버스 뒤에서 앞으로 물감을 밀어내는 독창적인 기법으로 한국 추상회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받는다. 이번 전시에서는 50여 년에 걸친 작가 인생의 주요 작품들이 두루 출품되는데 과거의 작품은 물론 이번 전시를 위한 신작도 함께 공개한다. 드물게도 국제갤러리 1관과 2관을 모두 사용할 예정인데 그만큼 의미 있는 전시라는 방증이다. 놓치면 아까운 전시가 될 것이다. **location** 국제갤러리 **date** 10월 18일까지 **tel** 02-735-8449



'Conjunction 95-026', 1995, Oil on hemp cloth, 185x185cm



'Conjunction15-04', 2015, Oil on hemp cloth, 194x259cm